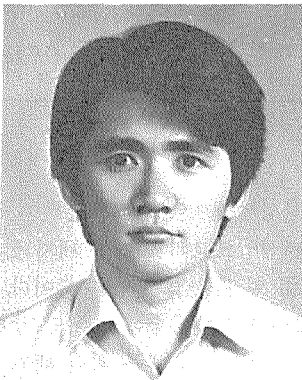


특집

□ 低油價時代 □

사우디의 石油政策과 油價전망



李 東 根

〈海外建設經濟研究所 責任研究員〉

I. 머리말

國際石油價格이 하루가 다르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부 油種의 경우 現物價格이 이미 第2次 石油危機 이전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산유국들은 輸出油價를 배럴당 15달러 내외로까지 引下하였다.

이와 같은 國際石油價格의 폭락은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定期總會에서 OPEC(石油 輸出國機構)가 減産을 통한 油價방어라는 종래의 정책을 포기하고 油價가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수준의 산유량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油價의 할인 등을 통해 시장쟁탈전에 가담하고 있었으며, OPEC의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온 나라는 사우디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번 OPEC의 石油政策 전환으로 정책이 달라진 나라는 사우디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OPEC가 지난 해 12월까지 수행해 왔던 정책이나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石油政策이 사실상 사우디 혼자만의 정책에 불과하고, 따라서 國際石油市場의 향방도 사우디의 움직임에 의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本稿에서는 이 사우디의 石油政策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國際石油市場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II. 사우디 政策轉換의 배경

사우디가 油價의 하락을 不辭하고 增産政策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 OPEC의 결정이 있기 전인 지난 해 9월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사우디는 自國內에서 石油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國際石油메이저들에게 네트백價格으로 石油를 공급하면서 산유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4분기에는 現物油價가 강세를 보이다가 금년에 들어와서야 폭락세로 돌아섰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리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계절적으로 石油수요가 늘어나는 時期가 있었고, 同物量이 소비시장에 도착할 때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OPEC이 石油政策을 공식적으로 전환한데에 따른 소비자들의 油價하락 기대심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한 때 하루에 1,000萬배럴에 달했던 산유량을 200萬 배럴로 줄이면서까지 油價防禦에 진력해 왔던 사우디가 갑자기 石油政策을 전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째 이유는 사우디가 자신의 減産이 油價의 방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非OPEC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國際石油市場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지난 해 중반의 사우디 산유량 하루 200萬 배럴은 同國의 石油輸出量이 하루 150萬배럴 내외에 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英國, 소련, 멕시코 등의 石油수출량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최대의 石油輸出國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행사해 온 사우디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으며, 따라서 사우디가 非OPEC의 지위강화를 스스로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온 감산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 이유는 사우디가 油價할인, 超過生産 등 협정위반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他OPEC 회원국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어 OPEC의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사우디는 수년전부터 他OPEC 회원국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自國도 생산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他OPEC 회원국들의 협정위반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OPEC의 盟主임을 자처하는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실행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石油專門家들이 사우디가 石油政策을 전환한 1차적인 목표가 OPEC의 기강확립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중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번째 이유는 사우디의 長期石油政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우디는 막대한 石油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자금수요가 他產油國에 비해 크지 않은 나라이다. 따라서 사우디는 石油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를 長期石油輸出收入의 극대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우디의 石油政策은 석유매장량은 적은 반면 인구가 많아 자금수요가 큰 이른바 強硬派 국가들의 短期石油輸出收入 극대화 정책과 부딪혀 OPEC내에서 여러번 마찰을 불러 일으킨 요인의 하나이다. 어쨌든 사우디는 적어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石油資源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까지는 石油가 主에너지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는 石油價格이 소비국들의 석유소비절약이나 代替에너지 개발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사우디가 지난 83년의 公示價 인하에도 불구하고 石油소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石油가격을 좀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번에 石油政策을 전환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 이유로는 사우디의 경제사정 악화를 들 수 있다.

지난 83년 이후 사우디의 經常收支와 財政收支가 상당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물론 전체수출의 90% 이상 政府收入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石油輸出收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緊縮政策과 수입억제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최근에는 사우디가 自國通貨의 가치를 크게 平価切下할 가능성이 크다는 說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우디가 油價방어를 위한 減産政策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과 수입억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同政策의 실시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들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당국이 最優先課題로 삼고 있는 왕정유지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Ⅲ. 注目되는 英·사우디 對決 결과

사우디가 石油政策을 전환한 이와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市場爭奪戰에 뛰어들어 사우디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非OPEC 산유국들로부터 상당한 감산을 유도한 다음, 이 減産分을 이용하여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經濟事情이 극도로 어려운 OPEC 회원국들의 생산쿼터를 늘려주어 협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앞으로는 OPEC의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우디는 OPEC內에서의 생산한도인 하루 435萬배럴의 石油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石油政策을 전환한 사우디가 노리는 최종 목표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우디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非OPEC 產油國들의 감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非OPEC 산유국들은 國際石油市場의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현재 國際石油市場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크게 줄이는 것인데, 이들 非OPEC 산유국들의 감산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우디가 최근까지 英國 등 北海산유국들이 산유량을 줄이지 않는 한 자신들도 증산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들이 최근의 공급과잉과 油價의 폭락을 야기한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이 石油生産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英國은 사우디의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감산의사를 조금도 비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유국들의 石油戰爭은 사우디와 英國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國際石油價格도 이들의 대결결과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 대결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사우디보다는 英國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이유는 먼저 油價의 폭락에 따른 타격이 사우디보다는 英國이 적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우디의 경우 油價가 배럴당 20달

러 이하로 떨어지면 산유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보다도 경제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英國의 경우 石油産業의 위축과 그에 따른 정부수입의 감소 등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油價하락에 따른 失보다는 득이 더 클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表 參照).

油價下落이 英國經濟에 미치는 影響¹⁾

(單位: %, 포인트)

	G D P 成 長 率	都 賣 物 價 上 昇 率	實 質 個 人 可 處 分 所 得	파 운 드 貨 換 率
1 次 年 度	0.1	- 0.1	0.0	- 2.2
2 次 年 度	0.2	0.2	0.1	- 1.7
3 次 年 度	0.1	0.1	0.1	- 1.5
4 次 年 度	0.0	0.0	0.1	- 1.5
5 次 年 度	0.0	- 0.1	0.0	- 1.2

註: 1) 油價가 10% 下落한 경우

(資料) 英國 財務省, Treasury Working Paper No. 34, April 1985.

뿐만 아니라 英國은 여러 利害集團으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와의 對決에서 英國의 승리를 점치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非OPEC 산유국들은 감산을 통한 油價방어라는 OPEC의 石油정책하에서 산유량을 늘리고 이를 OPEC이 설정해 놓은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상당한 이익을 누려왔다. 따라서 이들은 英國이 승리함으로써 사우디가 다시 종래의 石油政策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또한 石油消費國들도 非OPEC 산유국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英國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英國이 사우디의 압력에 굴복하여 감산에 동의할 경우 油價가 수급사정을 감안한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결코 石油소비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世界 최대의 石油소비국인 美國과 같은 나라는 石油輸入에 관세를 부과하는 方案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 때 減産意思를 표시한 노르웨이에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英國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國際石油메이저들도 英國을 지지하는 이해집단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0년대에 산유국들의 國有化 정책으로 산유부문의 지배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나, 아직도 石油의 판매 부문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급과잉기에는 생산자보다 판매망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월등히 유리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과 같은 공급과잉기가 OPEC에게 빼앗긴 世界石油市場의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함께 新規油田 및 代替에너지 개발투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石油메이저들이 수년전부터 中小石油會社들이 보유하고 있는 既存油田의 買收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油價가 크게 下落하면 할수록 既存油田을 처분하려는 中小石油會社들이 늘어나, 石油메이저들이 그만큼 싼 가격으로 既存油田을 매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밖에 先進石油消費國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言論媒体들도 石油供給過剩이나 油價하락 전망을 과장보도 하여 소비자들의 石油購買延期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英國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있는 감도 없지 않다.

이에 반해 사우디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극히 일부 산유국들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알제리, 리비아 등 強硬派 OPEC 회원국들로부터도 종래의 石油政策으로 돌아가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IV. 不透明한 油價전망

사우디와 英國을 제외한 他產油國들도 양국의 對峙결과를 銳意注視하면서도 나름대로 최근의 油價폭락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여념이 없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汎產油國 회의의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거나, 경제사정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산유국 기구를 별도로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등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유국들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國際石油價格이 지난 해 末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임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

나 石油價格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수급사정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주요 산유국들의 產油原價를 근거로 하여 나름대로 石油價格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石油의 수급사정이 油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OPEC이나 사우디의 정책이 油價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國際石油價格이 일반 상품의 경우처럼 生産原價를 근거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時期尚早인 것 같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石油의 가격도 사우디의 石油政策을 바탕으로 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사우디가 아직은 油價下落趨勢를 反轉시킬 수는 없더라도 油價의 하락세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사우디의 石油戰略이 성공할 경우 사우디가 기대하는 油價 수준은 배럴당 23~2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사우디가 85/86會計年度의 豫算과 同會計年度부터 시작되는 第4次 5個年計劃을 작성할 때 石油價格이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385萬배럴의 石油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우디의 산유량이 그들의 의도대로 하루 435萬배럴로 늘어난다면 油價가 배럴당 23~25달러로 하락해도 자금조달상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우디가 英國과의 대결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다음으로 사우디가 英國 등 非OPEC 산유국들로부터 감산을 얻어내는 데에는 실패한 상태에서 OPEC이 종래의 石油政策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OPEC의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確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루 435萬배럴의 산유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非OPEC 산유국들이 石油生産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油價는 앞의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油價가 배럴당 20달러 이하로는 결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油價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산유량이 하루 330萬배럴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도 사우디의 石油輸出收入이 더욱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사우디가 이와 같은 추가적인 石油收入 감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油價가 배럴당 20달러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사우디는 차라리 증산정책을 고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상은 사우디는 他産油國들과는 달리 막대한 증산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同政策의 지속으로 油價가 크게 하락할 경우에도 산유량을 늘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非OPEC의 감산도, OPEC의 再團結도 모두 불가능해져 모든 산유국들이 최근과 같은 石油戰爭을 지속할 경우 國際石油價格은 배럴당 10달러 혹은 5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심지어 英國까지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산유국들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현상황에서는 두번째 경우가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 때 사우디가 自國의 생산한도를 하루 50萬배럴 정도 줄이는데 동의하면서 公示價를 배럴당 20달러보다 약간 더 높은 水準에서 결정할 경우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V. 맺는말

國際石油市場을 60년대까지를 石油메이저들의 時代, 70년대를 OPEC의 時代로 구분한다면 80년

대는 新秩序形成을 위한 과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石油戰爭으로 油價가 어느 수준까지 하락한 후, 또한 어느 시점에 가서 國際石油市場이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인지를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산유국들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國際石油市場이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최근 수년간의 경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산유국들의 감산으로는 石油의 공급과잉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石油供給 過剩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石油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야 하며,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國際石油市場의 과도기도 앞으로 상당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國際石油市場이 과도기에 있는 시기일수록 국민경제에 血液을 공급하는 精油業界의 역할중대가 더욱 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과거 公示價體制下에서는 별다른 노력없이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가격으로 石油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력에 따라서 購入價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변화는 石油購入량이 적어 國際石油市場에서 교섭력이 크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方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 우리 精油業界는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필요한 物量의 적기공급에 덧붙여 다른 나라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고서는 精油業界가 과거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기 어렵게 된 것이다.

◆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튼튼 나라튼튼